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남 여수시 추가 선정

-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 결과, 전남 여수시 선정
-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중심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모델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9일(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진재영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이창엽 (044-200-5251)

참고 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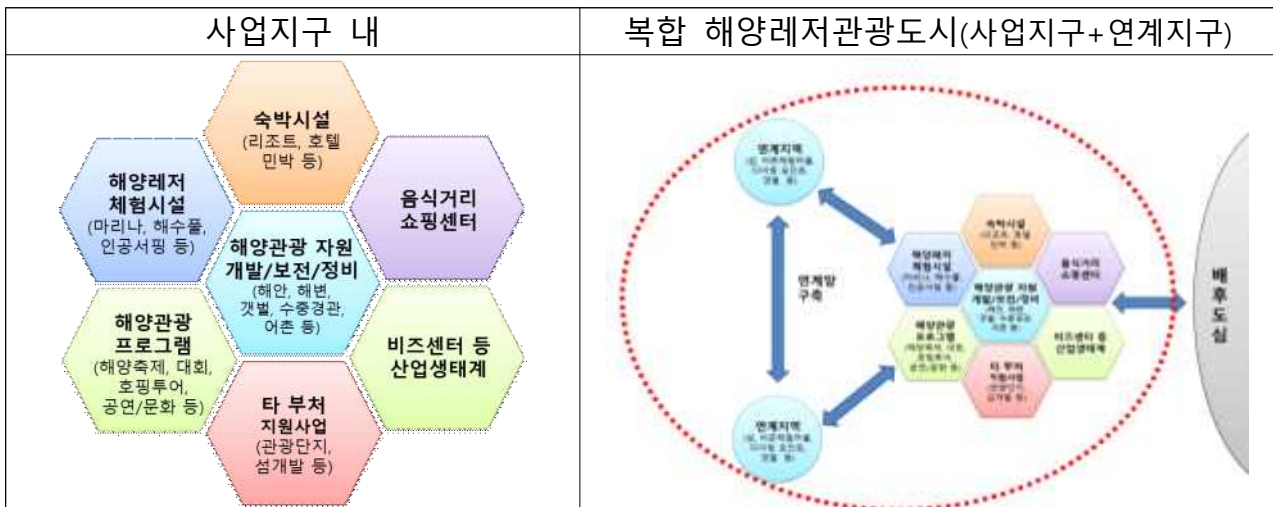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국내 해양관광 명소 조성, 여가수단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연안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기회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 지역의 고유매력과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객이 방문·증가하고, 이를 모멘텀으로 지역의 투자, 발전이 지속되고 도시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
- (사업위치)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규모) 총 1조 원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8,000억 원)
- (사업방식) 구역 전체를 신규 조성(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역을 지정하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신규시설 도입
 - 신규시설 도입은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투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매력 특화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 민간투자와 정부·지자체 지원을 지정된 구역(기존 자원 보유)에 집중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능이 집적화된 단지로 발전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도 >



참고 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

